

■ 회원사 동향

LG産電(株), 쿠웨이트에 몰드변압기 수출

LG産電(株)(代表: 李鍾秀)가 쿠웨이트 전력청에서 발주한 400만 \$ 규모의 몰드변압기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이번에 LG산전이 독일의 지멘스(SIMENS), 이탈리아의 고넬리(GONELLA) 등 서구 선진업체와 경쟁하여 수주한 쿠웨이트 전력청 프로젝트는 1,000kVA 50대, 1,250kVA 100대, 1,600kVA 100대 등 총 250대 400만 \$ 규모이며, 이중 50%는 금년에 나머지는 50%는 '99년 초에 납품할 예정이다.

쿠웨이트는 변압기를 제조하는 민간업체가 없어 전력청에서 일괄 구매하여 공급하고 있어, 이번 수주를 통해 향후 전력청 발주의 프로젝트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납품 실적을 중시하는 중동지역내 다른 국가에서의 입찰에서도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었다. 한편 LG산전은 금년 초에도 아랍에미레이트 전력청 발주 프로젝트를 수주한 바 있어 중동지역 내에서 LG산전 몰드변압기의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啓洋電機(株), CE·VDE 인증 획득

啓洋電機(株)(代表: 李相翊)가 유럽시장 진출의 필수인증인 CE마크와 VDE(독일전기기술자협회) 인증을 획득, 유럽시장 공략의 발판을 구축했다.

계양전기는 자사가 생산하고 있는 고속절단기, 금속절단기, 전기원형톱, 전기지그톱, 전기디스크그라인더, 임팩트드릴 등 전동공구 6품목 11기종에 대해 국내 최초로 인증을 획득했다.

CE마크는 유럽연합이 안전, 건강, 환경 및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제품에 부착토록 의무화한 안전마크로 유럽시장 진출을 위한 상품에는 반드시 필

요하다.

또 세계적 마크로 통용되고 있는 VDE 인증은 독일전기기술자협회가 독일에서 유통되는 제품의 안전성을 시험·평가해 인증마크를 부여하며, 법적으로 비강제적이거나 사고발생시 민사·형사상의 책임 때문에 사실상 강제인증이라 할 수 있다.

계양전기는 이번 인증획득을 통해 위축된 내수 시장을 탈피해 유럽을 비롯 중국, 미주등 해외로의 수출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大延電子(株), Digital Type Relay TAIWAN 수출

大延電子(株)(代表: 李昌根)는 그동안 해외 수출에 힘입어 대만 시장을 개척한 결과 금번 Digital Type 계전기 약 10만불의 수주를 받았다.

동사는 그간 일본, 말레이시아 등에 약 4년간 꾸준히 계전기를 수출하여 왔으며, 금번 수입대체 품으로 개발한 Digital Type Relay를 해외시장에 적극 공략한 결과 대만 Buyer로 부터 좋은 반응을 얻어 최초 수주를 받게 되었다.

현재 대만 시장은 미국, 일본, 유럽지역으로 부터 막대한 양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금번 첫 수출은 그동안 동사가 꾸준히 제품개발을 통한 품질향상과 가격경쟁력 확

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로 향후 대만지역 수출을 활발하게 추진, 연간 약 200만불 이상 출하하게 될 것으로 동사는 전망하고 있다.

이로써 동사가 개발한 계전기류의 해외시장을 더욱 적극 공략키 위하여 금년 하반기 해외 전력기기 전시회(베트남, 중국, 중동)에 적극 참여 홍보하므로써 IMF에 따른 국내시장 침체로 인한 매출감소를 수출지역 확대로 만회코자 전체 매출액 중 수출비중을 약 40% 이상 확대하여 '99년 부터 연간 300만불 이상 수출을 실현, 국내 전력기기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二和電機工業(株), 전력저장전지시스템 국산화

전력수요가 적은 심야전력을 2차 전지에 저장했다가 전력 수요가 많은 주간이나 갑작스런 정전사고 때 전기를 공급해 줄 수 있는 1MW급 전력저장전지시스템 및 제작·응용 기술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처음으로 개발됐다.

이화전기공업은 한국전기연구소와 공동으로 지난 '94년 6월부터 4년여 동안 총 19억7천만원을 투입, 에너지변환 효율이 75% 이상인 전력저장전지시스템과 AC/DC 변환장치 및 인버터 등을 자체 개발하는데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개발한 전력저장전지시스템은 출력용량

1MW, 정격전압 AC(교류) 4백80V, DC(직류) 7백44V로 개량형 연속전지 3백72개와 출력 1천2백50kVA급의 자력식 전압형 변환장치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20여평의 공간만 있으면 건물 내부 등 수요지역에 설치가 가능, 송변전설비를 유효하게 이용할 수 있고 모듈구조로 배치할 수 있으며, 정전사고시 출력응답속도가 10ms로 기존 무정전전원장치(UPS)보다 대응이 빠른 것이 특징이다. 이와 함께 진동 및 소음이 거의 없고 주파수 조정기능·비상용전원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원격제어

· 운용이 가능하다. 이 시스템은 또 연속전지를 사용, 유지보수 없이 최대 8년간 연속 사용할 수 있다. 이 제품이 본격 생산될 경우 연간 5백억원 이상의 공장 및 대형빌딩용 UPS제품 대체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함께 연간 50% 이상의 비상용 발전기 운용비용 절감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이화전기는 우선 시장성이 큰 대형건물용 5백 kW급과 송배전용 5~10MW급 시스템을 개발, 고압전기 수용가와 한국전력 등에 공급할 계획이다.

현재 미국·일본·독일 등 선진국들은 초전도 방식을 포함, 다양한 신형전력저장기술을 개발중이며 10~17MW급의 실용화를 추진중이다.

(株)泰進電氣, 우량 기술 기업으로 선정

(株)泰進電氣(代表:李浩哲)는 기술신용보증 기금으로부터 “우량기술기업”으로 선정되어 중소기업에서는 당당하게 기술 및 품질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 이미지를 확고히 다지는 계기를 마련했다.

태진전기는 1979년 7월 태진전기제작소로 창업한 이래 그동안 AVR, UPS를 전문적으로 생산하여 1990년 AVR 실용신안 특허를 획득한 것을 비롯 태양열 인버터개발, RSS용(48V50A 12대 병렬) 정류기 인증품 개발업체 선정, 전원집중관

리시스템 개발업체로 선정된 바 있으며, 1997년에는 업계 최초로 음성경보시스템(VAS) 기능을 추가한 UPS를 개발하였다.

또한,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품질경영 정착의 노력으로 ISO 9001 인증 획득, Q마크, EQ마크, CE마크 획득등 대내외에 공신력을 갖는 각종 인증도 획득하였다.

한편, 동사는 이번 우량기술기업 선정을 계기로 앞으로도 꾸준한 연구개발과 수출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株)信川精密, 가전용 브러시리스 DC모터 개발

(株)信川精密(代表:안준현)가 가전용 브러시리스(BL) DC모터를 개발, 올해 말부터 제품양산에 들어간다.

신천정밀은 최근 5억원의 연구비와 1년6개월의 개발기간을 투입해 가정용 에어컨과 가스보일러·정수기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소형 BLDC 정밀모

터를 개발하고 월 1만개의 제품 생산이 가능한 설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제품은 저압용(12~50V) 1개 모델과 고압용(1백V·2백20V) 2개 모델 등 총 3개 모델로 신천정밀은 현재 국내 에어컨 생산업체와 일본의 F사 등을 대상으로 이 제품들에 대한

승인획득을 추진하고 있어 이르면 올해 말부터 본격적인 제품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동안 식기건조기와 가습기용 소형모터 등을 주로 생산해온 신천정밀은 앞으로 이번에 개발된

가전용 BLDC 모터를 주력 생산품목으로 육성하는 한편 향후 본격적인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동차 및 산업용 BLDC 모터의 개발·생산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LG電線(株), 기가비트급 UTP 케이블 개발

LG電線(株)(代表: 權炆久)가 기존의 구리로 만든 데이터케이블의 전송 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기가비트(Giga bit)급 UTP 케이블 개발에 성공하고 본격적인 시판에 나선다.

UTP 케이블은 LAN이나 ATM, 인텔리전트빌딩의 네트워크에 사용하는 케이블로 구리(銅)선을 이용해 광케이블의 전송 속도를 가져 설치가 간편하고 설치비가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LG전선이 이번에 개발한 UTP 케이블은 지금까지 개발된 UTP 케이블중 전송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Giga bit급(Category6, 기존 Car. 5급은 100Mbps급, 1Giga bps=1,024Mbps)으로 동화상(動畫像)이나 많은 양의 자료를 고속으로 전송할 수 있어 차세대 데이터케이블로 각광 받고 있는 케이블이다.

특히 LG전선이 개발한 UTP 케이블은 어떤 장비와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장비의 호환성이 뛰어나 세계의 많은 장비 업체들이 채택을 서두르고 있다고 LG측은 밝혔다.